부정공 9세손 등암공 징(徵) 불천위제 봉행

지난해 음력 11월 18일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부정공 종택에서 권기승 종손 등 후손 30 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등암공 휘 징(徵)의 불천위 제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등암공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다가 1467년 병마북평사로 42세에 순절했다.

이날 집사 분정은 초헌관 권기승(權奇昇), 아헌관 권오경(權五景), 종헌관 권기정(權奇正) 축 권영억(權寧億) 집례 권오춘, 오특이 하였다.

공은 부정공 9세손으로 자형의 증손이고 선고는 통덕랑 종부시직장을 지낸 가후(可後)이다. 세종 8년에 출생하여 세종 29년(정묘1447년) 식년시 생원으로 합격하였으며 세종 32년, 문종즉위년 문과 정과 급제하여 세조 4년 공조좌랑, 사헌부지평이 되었다. 세조 13년 함경북도병마평사가 되어 관북으로 정벌을 나갔으며 이때 이시애의 난에 종군 중, 형세가 급박한 가운데 고군분투하다 패하니 옷소매를 잘라 혈서를 쓰니 "남아의 하는 일과 장부의 명이 자고로 이와 같다" 하며 자진하고 순절혈서를 보내니 향년 42세였다. 혈서가 도착한 이날(음 5월10일)을 기일로 하였다. 싸우던 곳을 권평사사절동(權評事死節洞)이라 하였다. 세조 1년 좌익원종공신에 녹훈되고 세조 5년 경서(經書)를 강하였으며 세조 9년 사헌부 지평 시 지방에 호패를 규찰하러 나갔다.

22세에 이기설(理氣說)을 지었고 사헌부 관원들과 총마계를 만들었다. 안동부 향사당에 쓴 시와 전시대책문(殿試對策文)이 있으며 후에 부조지전(不祧之典)이 내렸다. 의관장(衣冠葬)으로 묘소를 봉축하니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청석동에 있다. 보덕 유태좌가 행장을 짓고 해좌 정범조가 비문을 지었다.

아들은 갑성(甲成)과 을성(乙成)을 두었으며 갑성의 아들 엽(燁)은 참봉으로 졸하니 군자감정으로 추증되었다. 엽(燁)의 후사는 위기(偉器) 대기(大器) 중기(重器) 그리고 1녀를 두었다. 〈권혁세 기자〉

△부정공 9世(휘 징)불천위 제사에 권오춘 집사가 삽시하고있다.

△가야리 사당

권영세 안동시장

'2015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

권영세 안동시장(62, 안동 34世 복야공파)이 '2015대한민국CEO리더십 대상(사회책임 경영인)'에 선정되어 지난 12월23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산업통상부와 중앙일보, JTBC가 후원하고 월간중앙이 주최한 대상을,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시장은 취임이후 경북북부를 넘어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상생발전을 이끌어 가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경북북부 상생발전을 위해 2013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하고 신도청조성사업과 경북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전국최대 백신생산업체인 SK케미칼 등 우수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현장위주의 소통행정을 펴는 등 상생경영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4일간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6만여 명 이상의 생활체육동호인이 참가하는 전국체전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다. 지금까지 대전, 인천, 부산 등 대도시 위주로 열렸으나 경북북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기초단체 중소도시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북부 지역 12개 시군을 동참시켜 유치에 성공하면서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안동향우신문(12.31)1면 보도인용〉

陵洞林野 樹種改良을 위한 임원 임시회의

△대종원안동사무소에서 능동임야수종개량을 위한 임원임시회의에서 권계동상임부총재가 설명하고 있다.

2015년 1월 15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대종원안동사무소에서 부총재, 종무위원, 대의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안건은 지난 2014년 11월 19일 종무위원회에서 결의된 <능동임야 수종개량>에 관한 건으로 안동권씨대종원과 풍산류씨 공유인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산94-1(664,685㎡)과 서후면 성곡리 산13(226,512㎡)의 낙엽송 및 활엽수 매매 건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내용이었다.

문중 소유인 상기지번의 임야에 있는 낙엽송 및 활엽수 매매를 위한 대표자로 대종원 상임부총재인 권계동을 선임하기로 가결하였다. 매수인은 안동시 단원로 81-8 303-1102(운안동 명성 한마음타운) 류인철에게 매매하고 매매 대금 이천만원은 문중기금으로 적립하자는 의견을 회의에 부의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상기 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대표자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벌채 허가에 필요한 회의록과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 참석한 회원이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매수인은 벌채가 끝나면 이들 임야에 산림 복구를 위한 조림을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간담회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안동권씨회관 1층에 위치한 <양반밥상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2014년 송년특집 KBS도전골든벨 왕중왕전

권문의 권영성군 우승, 권대규군 준우승

안동 경안고등학교(교장. 김두진) 2학년 권영성(權寧成(17) 34世 부호장공파)군이 지난해 12월 28일 방송된 KBS '도전! 골든벨' 왕중왕 戰에 출전,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權 군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각 고등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나 높은 성적을 거둔 100명의 출연자와 겨뤄 왕중왕에 올랐다. KBS의 '도전 골든벨'은 전국 고교를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상식 문항 50문제를 출전, 최종 한사람을 뽑는 퀴즈 프로그램이다.

權 군은 지난해 11월 2일 경안고 개교 60주년을 맞아 치러진 골든벨에서 우승을 차지해 자격을 얻었었다. 權 군은 골든벨 왕중왕 戰에서 다른 학생과 달리 패자 부활전도 없이 1번부터 44번까지 문제를 모두 맞히고 45번 문제에서 권대규군(김포 장기고 1년-지난달 골든벨 우승, 안동권씨종보 게재)과 문제를 겨뤄, 소설 제목 이름을 맞추는 과정에서 '양철북'을 맞춰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권대규군이 차지하는 등 우리의 후예가 권문을 빛내주었다. 우승을 차지한 후 교무실에서 만나 소감을 묻자 "저와 우리 학교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많은 교과 과목 가운데 영어를 가장 좋아한다는 權 군은 어머니의 권유로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모든 책을 닥치는 데로 읽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 하는데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 이외에도 바둑, 장기도 프로급이어서 지능 발달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은혜(趙恩惠) 담임 선생은 "권 군은 2학년 2반 학생 31명 가운데 성적이 상위급인데 매사에 적극적이며 항상 책을 많이 읽어서 상식이 풍부하여 이번 왕중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벅머리에 여드름이 나고 치아를 교정중인 權 군은 골든벨 수상자 50명과 함께 오는 2월 미국 하와이에 3주 동안 연수를 간다.

權 군은 대학에 진학하면 판, 검사나 의사보다 경영학을 전공하여 건실한 기업을 키우는 것이 꿈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지난 연말송년특집 KBS 도전골든벨 왕중왕전에서 (우측)흰모자 권영성 1등과 옆 권대규 2등이 자랑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 건설회사의 감리로 있는 아버지 권익중씨(58)와 어머니 이윤화(50) 사이에 권 군과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현재 모 방송국 PD로 근무하고 있다.

경북북부지방에서 사학(私學)의 명문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안고는 기독교재단의 학교로 올해 개교 60주년으로 1954년 2월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졸업생을 1만9천9백여 명 배출시켰으며 재학생은 5백25명이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사진 권진흠〉

검교공파 서울종친회 송년회

2104.12.22 검교공파 서울종친회(회장 권오운)는 서울시청 뒤 '금강산'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권영기총무부장의 사회로 오운회장은"추운 날씨에도 많은 회원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데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으며, 이어 권은희 국회의원의 축사로 "권문의 발전과 검교공파의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자"고 새해의 덕담으로 축사를 갈음하였다. 이어 권태강 검교공파회장의 송년사에 이어 권영기 총무부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 두백(주)대표이사 권오성회장이 30만원, 권용모변호사가 5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하였으며, 식대 50여만원은 권정수회원이 부담하여 회원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기타 토의에서 지난 1년의 회고와 다가올 신년의 정기총회 등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별 오리코스와 약주를 곁들여서 화기애애한 분기위 속에 멋진 송년회를 마쳤다. 〈권영기 총무부장〉

△검교공파서울종친회 송년회

傳統禮節(전통예절)

우리民族의 전통적(傳統的) 가치를 담은 의례(儀禮)는 민족(民族)의 얼이요 생활의 근간(根幹)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전통적 예절(傳統的 禮節)을 수호계승(守護繼承)하면서 설 명절 제사 절차를 소개한다.

1. 공수(拱手) 하는 예절(禮節)

의식 행사나 어른께 공경을 표할 때 공손한 자세로 두 손을 맞잡는 방법을 공수라고 한다.

(1) 공수(拱手)하는 방법(方法)

양손을 엄지와 둘째손가락 사이 서로 엄지손가락을 下, 上로 끼어 손을 잡아 가슴 명치끝 아래에 공손히 손을 붙힌다.

① 남자의 평상시 공수는 왼손이 위이다.
② 남자의 흉사시 공수는 오른손이 위이다.(초상집)
③ 여자의 평상시 공수는 오른손이 위이다.
④ 여자의 흉사시 공수는 왼손이 위이다.(초상집)
⑤ 공수시의 엄지손가락은 엇갈려 깍지 낀다.
⑥ 도포, 활옷과 같이 소매가 넓은 예복을 입었을 때는 공수한 손이 수평이 되게 올린다.
⑦ 평상복을 입었을 때는 공수한 손의 엄지가 배꼽 위에 닿도록 자연스럽게 내린다.
⑧ 공수하고 앉을 때는 손의 위치는 남자는 중앙에 두고, 여자는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는다.

(2) 읍(揖)하는 예절(禮節)

읍이란 상대방에게 간략한 공경을 표하는 의식으로 공수하는 방법으로 양손을 잡고 허리를 굽히며 上, 下로 동작하는 예절로 남자만 행한다.

① 공수하고 읍할 대상을 향해 선다.
② 두 다리를 편하게 벌린다.
③ 고개를 숙여 자기의 발끝을 본다.
④ 공수한 손이 무릎 아래에 이르도록 허리를 굽힌다.
⑤ 허리를 일으키며 공수한 손을 밖으로 원을 그리며 팔뚝이 수평이 되게 올린다.(여기까지가 揖' 읍' 이다.)
⑥ 상읍례(上揖禮)에서는 공수한 손이 눈썹에 닿도록 끌어 올린다.(윗 어른에게 하는 예)
⑦ 중읍례(中揖禮)에서는 공수한 손이 턱뼈에 닿도록 끌어 올린다.(동급에게 하는 예)
⑧ 下읍례(下揖禮)에서는 공수한 손이 가슴에 닿도록 끌어 올린다.(아랫 사람에게 하는 예)
⑨ 공수한 손을 끌어당긴 위치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원위치로 내린다

2. 忌祭祀(기제사)선조의 예법에 따른다.

(1) 진설(陳設)

① 집사자와 진설자가 제상에 1열과 2열 제수를 먼저 진설한다.
② 잔대, 시접, 촛대, 향로, 향합, 축판, 모사기, 퇴주기 등을 정한 위치에 배열한다.

(2) 神位奉安(신위봉안)

제주(祭主)가 신주(神主) 또는 지방(紙榜)을 써서 신위를 모신다.

(3) 강신(降神)

제주가 향로에 향을 세 번 사르고 분향재배(焚香再拜)한다.

① 제주가 향로상 앞에서 읍하고 끓어 앉아 右집사는 술병을 左집사는 강신잔(降神盞)을 잡고 제주 양쪽에 앉는다.
② 제주가 左집사로부터 술잔을 받아 右집사로부터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받는다.
③ 제주는 강신잔의 술을 모사기에 세 번에 다 따르고 (三除) 左집사에게 잔을 주고 재배한다.

(4) 참신(參神)

① 모든 참사자가 남자는 재배 여자는 사배를 올린다.
② 신주를 모실 때는 강신전에 참배한다.(先參後降)

(5) 진찬(進饌)

① 모든 제주를 적(炙)만 남기고 진설한다.
※ 가문에 따라 적도 진설하기도 하나 이는 상중제사(소상, 대상)에 하는 것이다.

(6) 초헌(初獻)

① 제주가 향로상 앞에서 신위에 읍하고 신위전 잔반을 잡아 제상 앞에 동향하여 선다.
② 右집사가 술을 따라주면 제주는 신위전(고위전)에 잔을 올리고 향로 앞에 앉는다.
※ 가문별로 제주가 제상앞에 앉으면 左집사는 신위전 잔반을 제주에 주고 右집사로부터 술을 따라 받아 다시 左집사에 주면 집사가 고위전에 잔을 올리기도 한다.
③ 다음 비위 잔반을 받들어 똑같이 한다.
④ 左집사는 신위전에 올린 잔반을 받들어 제주에 주면 제주는 술을 세 번을 조금씩 모사기에 따르고 반이상 남겨 左 집사는 잔반을 신위전에 올린다.(고위, 비위순으로 한다.)
⑤ 집사는 육적을 올린다.
⑥ 정시저(正匙箸)하고 메, 탕, 면 뚜껑을 연다.
※ 정시저는 시접에 수저와 젓가락을 바르게 놓는 것인데 이때 삽시(插匙)(메에 수저를 꽂는 것)를 하기도 한다.

(7) 독축(讀祝)

① 축관이 제주 좌편에서 우향하여 앉고 모든 참사자가 꿇어앉는다.
② 축을 읽고 잠시 부복한 후 모두 일어난다.
③ 제주(초헌자)는 재배한다.
④ 집사자는 신위전 잔을 퇴주한다.

(8) 아헌(亞獻)

① 종부(宗婦)가 아헌을 올리는 예이나 형편대로 아헌자를 정한다.
② 초헌때와 같은 절차대로 행한다.
③ 적을 올린다.(삼적중 어적을 먼저 올리기도 하고 계적을 먼저 올리기도 한다.)
④ 아헌자는 재배한다.
⑤ 신위전 잔을 퇴주한다.(술잔의 잔을 퇴주기에 따르는것)

(9) 종헌(終獻)

① 근친자 또는 친빈자(親賓者)로 종헌자를 정한다.
② 아헌때와 같이 절차대로 행한다.
③ 적을 올린다.(계적 또는 어적)
④ 종헌자는 재배한다.

(10) 유식(侑食)

① 제주는 신위전 잔에 술을 첨작하고 수저를 메에 꽂고 젓가락을 정저한다.
② 제주는 재배한다.

(11) 합문(闔門)

① 모든 참사자가 문을 닫고 나온다.
② 문밖에서 조용히 일식구반지경(一食九飯之頃)이라 하여 四~五분가량 기다린다.

(12) 계문(啓門)

① 축관이 희흠(噫歆)기침을 세 번 고하고 모든 참석자가 입실한다.

(13) 헌다(獻茶)

① 갱(국)을 물리고 숙수를 올린 후(삼초반 三抄飯)
② 잠시 공수하고 서 있는다.(국궁소경 鞠躬少頃)
③ 下匙筯(하시저:시접에 수저와 젓가락을 거두어 놓음)하고 闔飯蓋(합반개:메, 면, 탕 뚜껑을 덮음)한다.
※ 하시저시에 메를 숙수에 세 번 떠 넣기도 하고(삼초반 三抄飯) 숙수위에 수저를 놓기도 한다.

(14)사신(辭神)

① 참사자 일동이 남자는 재배 여자는 사배를 한다.
②신주이면 사당에 봉안하고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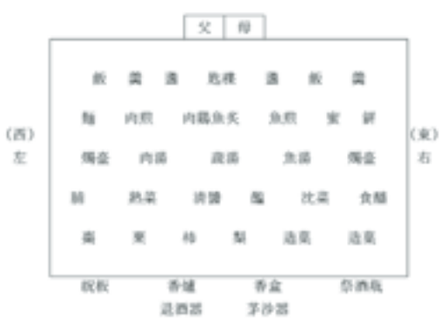
(15) 철상(撤床)

① 모든 제수를 물린다.
② 진설의 반대 순서로 한다.

(16) 음복(飮福)

① 선조께서 내리신 복 받는 음식이라 하여 모두 나누어 먹고 음덕을 추모한다.
② 음복끝 까지 예이므로 제복을 벗지 않는다.

진설(陳設)

※ 3열과 4열을 바꾸어 진설도 한다.
② 신위를 정면으로 향하여 집사자의 右편을 東으로 左편을 西로 삼는다.(神位之左 生人之右가 東向)
③ 진설에는 합설(合設)과 단설(單設)로 구분한다.
④ 음양(陰陽)의 이치를 따라 천산물(天産物)인 적, 탕은 陽인고로 양수인 1,3,5,7의 홀수로 쓰고 지산물(地産物)인 과일, 채소 등은 陰인고로 음수인 2, 4, 6, 8의 짝수로 제수의 가지수를 정한다.

※ 例1 조율시이 법(棗栗柿梨 法)